

383장 - 눈을 들어 산을 보니

- (1)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 (2) 도우시는 하나님이 네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네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 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286장 -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1)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 (2)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 (3)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 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 후렴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1월 20일(월) 기도 담당 : 김종근 집사

2020년 1월 18일(토)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 말	인도자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83장	다같이
기도	박배웅 집사
성경봉독 학개 2장 1~9절	인도자
찬양	새벽찬양대
설교 『그달이십일일』	엄재광 목사
기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같이
찬송 286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 오늘의 말씀 < 학개 2장 1~9절 >

- 1 일곱째 달 곧 그달이십일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2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 3 너희 가운데에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 4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5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 6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 7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 9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20년 1월 18일(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게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사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하나님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해 하시사, 가장 적절한 시기에 낙심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하고 거룩하게 주와 동행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새문안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아부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내일 드러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삶에 지친 주의 백성들에게 힘과 기쁨을, 상처와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앞이 캄캄한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책임져 주옵시고, 주의 크신 팔과 강한 손으로 강력히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시며, 복녔의 지하교회와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속히 도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